

알칼리 이온수 건강효능 임상실험 입증

알칼리 이온수기 전문기업 바이온텍은 연세대 의대 이규재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 알칼리 환원수가 당뇨, 체지방 감소, 암세포 전이억제,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었다고 4월26일 발표했다.

실험결과 당뇨병에 걸린 쥐에 알칼리 이온수를 32여일간 투여했을 때 혈액 내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이 억제됐으며 암을 유발시킨 흰쥐 조직에서도 활성산소가 감소됐다는 것이다.

또한 알칼리 이온수를 마신 닭은 근육의 지방성분이 일반 물을 마신 닭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백질 함량 수치는 알칼리 이온수를 마신 닭이 훨씬 높게 나왔다.

이밖에 비만 쥐에 알칼리 이온수를 투여한 이후 일반 물을 마신 쥐보다도 무게가 50g 가량 감소했으며 당뇨병 환자들은 이온수를 마신 후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이규재 교수팀은 실험내용을 5월 전국 기초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4/27>